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와인’
유니온 38 레세르바 시라
 Union 38 Reserva Syrah

지역	칠레 > 센트랄밸리		
포도품종	시라 100%		
알코올	13%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잘 익은 블랙베리, 플럼의 과실향과 함께 약간의 바닐라, 초콜릿 향이 특징이다. 풀 바디와 오랜 피니쉬로 편안하게 즐기기 좋다.		
페어링 TIP	붉은육류/흰육류/익힌채소/치즈		



제품설명



유니온38은 대한민국 No.1 와인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과 칠레 No.1 와이너리 콘차이토로가 한국의 영원한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특별히 기획한 레인지이다. 모든 국민들이 유니온38과 함께 가족, 친구, 나아가 공동체에서 화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레세르바 급이지만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하였다.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통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까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